

## 그리스도인,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

사도신경	.....	다함께
찬 송	..... 288장 .....	다함께
	1.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2.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3.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량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후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하리로다 아멘	
기 도	.....	맡은이
성경봉독	..... 요한복음 3:1~8 .....	다함께
	<sup>1</sup>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sup>2</sup>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sup>3</sup>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sup>4</sup>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sup>5</sup>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sup>6</sup>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sup>7</sup>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sup>8</sup>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 Ⅰ 삶 나누기

한 주간의 삶과 QT,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간단히 나눕니다.

---

# 그리스도인,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

---

2024. 10. 13. 주일예배 설교

## “한밤중,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

---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기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밤’은 매우 상징적인 시간입니다. 빛과 대립하는 시간이요, 혼돈이 가득한 시간이며, 어둠이 지배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이 밤은 단순히 시간적 개념을 넘어 니고데모의 내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는 혼란스럽고 답답하며, 어두운 무엇인가를 끌어안고 씨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갈급해 하던 때에, ‘혹시 저 분이시라면’ 하는 마음으로, 그는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사회적/종교적 지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지만 울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려 하지만 자기 안에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것을. 그는 지금 ‘영혼의 어둔 밤’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밤을 이겨내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결국, 빛이 들어와야 합니다.

※ 밤을 이겨내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결국, 빛이 들어와야 합니다.

## “거듭남,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

그런 상태의 니고데모를, 이미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절).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어둔 밤이 사라지고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려면, “거듭남”, 이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은 헬라어 <아노센>인데, ‘다시’, ‘위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이는 출생의 근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존재와 인격이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처럼 생의 출발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면,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과 목적까지도 달라집니다.

※ 거듭남은 위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 “거듭남,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에겐 큰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은 누구보다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자신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삶을 살고 있었으며, 살았다 하더라도 아래로부터 태어나 자신의 열심을 따라 산 것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롬 10:2)라고 말했습니다.

불교나 유교 같은 동양의 수행 종교는 조금씩 조금씩 구원과 해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다릅니다. 마치 허물어지는 집을 완전히 밀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짓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 이전에 잘못된 것들은 다 끊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완전히 새로운 시작입니다.

※ 거듭남은 허물어지는 집을 무너뜨리고, 다시 새 집을 짓는 것입니다.

## “거듭남,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능한 것”

---

그런데 이것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5절)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가리킵니다. 이 둘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물세례는 개인의 결심으로 가능한 일이지만, 성령세례는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찾아와 주셨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나는 거듭났는가, 거듭났다면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종교적 열심이나 체험유무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전 12:3). 내가 성령세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결국, 나와 예수님이 어떠한 관계인지가 말해줍니다.

※ 거듭남은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가능합니다. 결국, 주님과 관계입니다.

## 결론

---

내가 생명을 얻고, 내 인생에 영혼의 어둔 밤이 걷히고, 깊은 평안이 찾아오고, 생명을 꽃피우는 삶을 사는,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내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단순하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을 외면하고 오신 분이 있다면, 즉시 주님 앞에서 자신을 깊이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거듭났는가, 혹시 종교생활 해 온 것을 거듭난 삶으로 오해해 온 것은 아닌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지 아닌지는, 나 자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 진정으로 항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죄악 된 자가 더 이상 나 자신을 속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께 항복합니다. 저를 찾아와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 나를 거듭난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

## 말씀 나눔

---

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아노센)의 핵심의미는 무엇이며(2가지), 오직 우리는 무엇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 ○○○○ / ○○○의 ○○

② “거듭남”은 마치 무너져가는 집을 허물고, 다시 새로운 집을 짓는 것과도 같습니다. 혹 그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나로 하여금 주저하게 만들었던 것(과거) / 주저 하게 만드는 것(현재)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③ 지금,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 고백이 나와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진솔하게 나누어 보고, 기도제목으로 표현해 봅시다.

④ 그 외에 이번 공과가 주는 은혜, 위로, 격려, 혹은 도전이 있다면 나눠주시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